김준희의 마·이·클(마음으로 이어주는 클래식) - 슈만의 예술가곡 '헌정'과 '연꽃'

슈만과 클라라. 출처=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홈페이지

수줍은 고백 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곡 연꽃

사랑과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연꽃은 피어나고 빛나고 반짝입니다

달빛으로 그녀를 깨우면 연꽃은 자신의 순수한 얼굴을 행복하게 보여줍니다

연꽃은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연인 클라라에게 바치는 청혼가 헌정

그대는 넘어서서 나를 사랑스럽게 드높여 주었소

그대의 눈빛이 나를 광명에 찬 모습으로 나를 변화하게 하고

그대는 나의 심장 그대는 나의 기쁨

그대는 나의 영혼

가장 훌륭한 악기로 사랑을 노래하다

낭만주의 시대 탄생한 '예술가곡'
같은 선율로 반복해 부르고
여러 개 시 엮어 부르기도
뮤즈 '클라라'에게 바치는 연가곡집
'미르테의 꽃' 슈만의 뜨거운 사랑 담아

세상의 모든 악기 중 가장 훌륭한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인류 최초의 악기는 어쩌면 인간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악곡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대략 17세기 초반까지의 음악사에서 성악곡이 기악곡보다 우위에 있었죠. 악기의 발달과 함께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기악곡이 작곡됐고, 이후 서양음악에서 정서의 표출과 주관적 표현을 중시한 낭만주의 시대에는 '가곡(Lied)'이라는 멋진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예술가곡(Kunstlied)'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악곡은 독창과 피아노를 위해 만들어진 독일어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예술성이 높은 문학 즉, 시·소설·동화 등의 내용과 반주, 그리고 노래가 훌륭하게 조화된 복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와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예술가곡의 피아노 반주는 주로 화성이나 리듬으로 성악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이전 시대와 달리 가사 분위기와 느낌을 표현하고 회화적인 느낌을 살리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와 음악, 성악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조화가 특히 돋보이는 장르가 바로 예술가곡입니다. 작곡가들은 피아노와 노래의 2중주를 통해 낭만주의 서정시인 하인리히 하이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등의 시와 음악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독일 이외 지역의 노래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예술가곡을 멜로디라고 부르고, 더 대중적인 작품을 샹송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예술가곡을 로망스, 대중적인 작품을 칸초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아트송으로 부릅니다.

예술가곡 장르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른 작품과 달리 다양한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가곡은 보통 그 형태에 따라 통절 가곡, 유절 가곡으로 분류합니다. 통절 가곡은 각 절을 각각 다른 선율로 노래하고 유절 가곡은 각 절을 모두 같은 선율로 반복해 노래한 것을 뜻합니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여러 개의 시를 엮어 하나의 줄거리를 연결하듯이 연속적으로 곡을 모아 '연가곡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슈베르트로부터 시작된 독일 예술가곡의 계보는 슈만, 브람스, 후고 볼프 등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슈베르트의 '송어'와 '마왕'이 있습니다. 가곡집 『겨울 나그네』에 속한 '보리수' 역시 유명한 곡입니다. 슈만의 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 가브리엘 포레의 '달빛', 빈첸초 벨리니의 『방황하는 은빛 달빛』 등이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들입니다.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은 슈베르트와 더불어 초기 낭만주의 가곡을 많이 남긴 작곡가입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리고자 한 그는 원래 라이프치히대학에 재학 중인 법학도였습니다. 독학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던 슈만은 무리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혹사하며 훈련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작곡가로 진로를 바꾼 그는 피아니스트이자 그의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 클라라 비크(1819~1896)와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크는 신동 피아니스트로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소중한 딸 클라라의 반려자로 신출내기 작곡가 슈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클라라가 성인이 된 1840년 9월, 그들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할 때 피아노를 선물합니다. 클라라는 슈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듯 그 피아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또한 슈만은 결혼하기 하루 전 클라라에게 『미르테의 꽃(Myrthen)』이란 연가곡집을 바칩니다. 미르테는 향기가 곱고 하얀 꽃으로 신부의 화관에 쓰이는 순결을 나타내는 꽃입니다.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뜨거운 마음을 반영하듯 26개의 가곡으로 구성된 이 가곡집의 첫 번째 노래 제목은 '헌정'입니다. '그대는 나의 영혼, 그대는 나의 심장, 그대는 나의 기쁨, 오 그대는 나의 고통, 그대는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나의 세상. 그대는 나의 하늘, 그대는 나의 무덤. 나의 슬픔을 영원히 묻는 곳! 그대는 나의 안식이고 평화, 하늘이 내게 선물한 사람.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오. 그대의 눈빛이 나를 광명에 찬 모습으로 나를 변화하게 하고, 그대는 넘어서서 나를 사랑스럽게 드높여 주었소. 나의 선한 영혼, 더 나은 나!'. 프리드리히 뤼케르트의 시에 의한 곡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슈만의 고백을 담은 청혼가입니다.

『미르테의 꽃』에서 '헌정'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은 일곱 번째 곡인 '연꽃'입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음악을 붙인 곡으로, 무한의 서정성과 절제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성 변화에 따른 미묘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이 곡은 첫 곡 '헌정'에서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리 수줍은 고백과 같습니다.

"연꽃은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는 꿈을 꾸면서 밤이 오길 기다립니다. 달은 그녀의 연인. 그가 달빛으로 그녀를 깨우면 연꽃은 자신의 순수한 얼굴을 행복하게 보여줍니다. 연꽃은 피어나고 빛나고 반짝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향기를 발하고 흐느끼고 또 두려워합니다. 사랑과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이 작품에서 연꽃은 클라라입니다. 연꽃을 비추는 달은 슈만 자신입니다. 소녀 시절 고전 작품이나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의 작품들을 자주 연주한 클라라는 결혼 후 남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슈만이 유명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녀가 연주하는 슈만의 곡들은 단숨에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라라는 슈만의 내면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존재하던 단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슈만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는 여름밤에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슈만은 클라라와의 결혼으로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인생의 봄날을 누리게 됩니다. 슈만은 『미르테의 꽃』을 작곡하며, 그의 진정한 '뮤즈(음악의 여신)'인 클라라를 향한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돼준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심장 박동과 열정이 담긴 『미르테의 꽃』을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준희**는 연주와 강연으로 '대중의 클래식화'를 꿈꾸는 피아니스트다. 저서로 『클래식 음악 수업』 『클래식, 경계를 넘어』가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다.